

나의 제언

백 린

도서관이 문화의 매신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시대의 총아로 등장하려면 도서관 자료와 시설 그리고 인원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요소인데 그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도서관에 관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도서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知的 소양을 갖추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이를 지키고 키워 나가야 비로소 생동하는 도서관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서를 질적인 면에서 볼때 영국의 FLA같은 칭호는 받을 수 없다해도 최소한 현대 도서관이 요구하는 자질만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도서관인은 어떤가? 지극히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개월 현직에 종사한 사람이 단기간의 훈련을 거쳐 실무에 입하는 사람이나 도서관학을 4년이나 전공하고 대학원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가진 자와의 실무상의 차이가 어느정도 격차가 있나?

사서직이 사실 도서관법이 공포한 대로 전문직이 확실하다면 실제로 도서관일선에 나와있는 그가 과연 대학에서 배운대로 전문적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타 전공의 도서관장이나 다른 관리직이 볼 때 도서관학을 전공한 자는 과연 남들이 추종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 태도로 볼 것인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자타가 이렇게 사서직을 우습게 보는 현상은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신효과적인 일처리에만 급급한 생활습성과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도층의 무관심, 소극적 봉사에서 오는 사회적인 인식부족, 도서관학 교육의 맹점, 사서들의 자포자기에서 오는 체념 등이 그 원인인 것 같이 생각 된다. 따라서 현재 사서들이 잠재하고 있는 불만감과 앞으로의 희망을 여기에서다 절수 없는 불안감

으로 기회만 있으면 전직을 하고 보수가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그 중에 오도가도 못하는 무능력자만이 머물러 있고 급기야 『人生五十』만이 지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결코 도서관의 발전은 암담하기만 하다. 그들 사서들에 대한 대우를 보라. 학문적으로는 우수한 엘리트를 요구하면서도 사회적 대접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 보수면에서도 전문적 대우를 못받고 있으며 자기발전의 범위와 승진이 극히 제한 되어있다. 공무원법에 있어서는 가장 상위직으로서 사서관(3급을, 사무관에 해당)이 그 한계로 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경우도 거의가 관장의 지위에는 무시되어 있고 공공도서관에서도 일반 행정직이 도서관장이고 학교도서관의 경우도 사서교사가 소의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자기의 신념과 정열로 희생적 봉사를 바치려는 사서가 있더라도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면 이 무서운 좌절감 앞에는 결국 체념하고 말것이다.

이러한 “탄화가계”적인 도서관을 시정하지 않고서 도서관 발전 운위하는 것은 백년하청이니 언젠가는 우리 사서가 이 멍에를 벗어야 한다.

그것이 하루가 빠를수록 사서들의 내일은 밝아질 수 있고 장래가 약속되는 것이다. 석고(石膏)가 되어있는 <서고지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라이브 라이언이 되어서 사장(死藏)된 문헌을 발굴하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수집하여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데 직접 참여하여 적어도 어느 분야에 한해서는 그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표면에 보이는 않지만 묵묵히 서지작성을 하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며 문헌홍수 속에서 보다 勤적이고 적극적인 봉사를 하여 국민의 정신적 영양소의 제공처가 되고 지(知)적 문제나 인간의 내면적 문제를 풀어 주기 위한 서비스·센타의 구실을 할 때 자연히 위의 문제가 해소되고 명실공히 사서의 진가가 사회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노정(露呈)되고 그의 성의와 노력은 스스로 빛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도서관이 역사의 산실이고 사회의 요람이라면 사서는 바로 산모역이니 이 산모가 전전하고 튼튼해 질때 은 나라의 문화가 창달되어지고 사회가 풍요해 지리라는 견해도 가져 볼만한 생각이다.

인 사 소 식

박희영 (전) 한국의국어대학 도서관 사서장
(현) 동국대학교 도서관 사서과장
(1971. 10. 4일부)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도서실장) (가나다 순)
박계홍 (KIST도서실장)
이병목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전임강사)
이상조 (한국의국어대학 도서관장)
최도철 (군산고등학교장)
이상 5분은 제37차 IFLA총회 참석후 귀국

■ 新 刊 紹 介

1. Staff Exchanges in Librarianship (司書職의 人事交流)

不幸히도 “交流(Exchange)”라는 單語의 一慣用 用法이 아직까지 없다. “交流”라는 말은 通常 2명 또는 그 以上の 人員이 一定한 期間동안 그들 業務를 좀더 習得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交換活動을 말한다. 著者는 本文에서 “交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풍부한 經驗을 가진 대학이나 도서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理論과 實務를 잘 調和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人選委員會에서는 이 問題를 고려하여 選擇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選定된 사람은 外國의 國家의 습관이나 역사, 언어를 미리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국가는 받아들일 사람의 경력, 어학실력 등을 미리 Check 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동양인일 경우 분류목록부서에 근무시킬 수는 있으나 참고 업무는 맡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交流는 交流者 상호간이나 交流對象 圖書館끼리 연결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交流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자로서의 PSC(Post-Professional Study Center)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71p. 가격 ￦1.5.

2. The Role of Conferences in the Further Education of Librarians (司書들의 將來教育에 있어서 Conference의 기능)

도서관 관계 文獻에서 ‘Conference’ ‘Meeting’ ‘Seminar’ ‘Symposium’ ‘discussion’ 그리고 ‘lecture’는 區別없이 使用되어 왔으나 ‘Conference’ ‘seminar’ ‘symposium’은 ‘meeting’ ‘discussion’ ‘lecture’보다 훨씬 더 學究的(academic)으로 使用된다. ‘Conference’는 獨逸 大學에서 “議論이나 討議를 위한 形式的인 모임”으로 使用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Conference는 이들 모두를 포괄하여 稱칭하는 말이다.

모름지기 모든 文獻의 保管者로서, 司書는 지금까지 文化와 知識의 보루였다. 따라서 司書는 모든 可能한 限 수단과 方法으로 이러한 知識을 利用할 수 있도록 다들어 왔고 그의 特有的 分野와 特殊性을 開發하는데 盡力해 왔다.

이 冊字는 著者가 提議한 Post-Professional 教育의 한 制度의 方法으로서 Conference를 擇하고 說明한 것이다. 이러한 會議는 그것이 國內會議이던 國際會議이

던 또는 公式的이던 非公式的이던 間에 司書들 상호의 접촉에 의해서 새로운 技術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利得은 많은 司書들이 參與함으로써 各其 立場에서 얻는 技術보다 더 많은 利得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서, 司書들이 各者의 생각(Idea)을 상호 교환하는 方法은 신중히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환 方法은 司書들의 그룹活動이나 會議性格을 加一層 빛나게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結論的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적인 司書教育의 모든 分野를 展望할 수 있는 Center 設立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34p. 가격 ￦1.

3. In-Service Training in Librarianship (司書職에 있어서 現職教育)

8 Chapter로 된 이 論文은 전문교육을 끝내고 現職에 처음 근무하는 新任司書의 現職教育 또는 계획교육을 고찰한 것이다.

筆者는 本文에서 “過去의 現職教育은 非專門의 고용인(司書)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전문적인 教育은 점차적으로 도서관학교의 한 교육과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完全하고 體系的인 實習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實習司書가 알아 두어야 할 每日의 日課와 全 主題分野에 관한 list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계획은 그 分野의 業務에 對한 分析이 되며, 또 이 list는 實習司書가 배우는 40여 가지의 雜多한 도서관 業務절차와 主題를 包含시켜 짜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이러한 實習計劃의 成敗與否는 社會潮流와 現實을 감안하여 그때 그때 修正 再作成되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結論的으로 司書들의 Post-Professional 教育을 위해 서는 모든 분야의 組織이나 教育方向 및 增進을 위해 서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가 설립되어야 하며, 그러한 Post-Professional Study center는 實習教育, 教育計劃과 절차,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任務수행을 위하여 통계하고 감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結論지었다. 40 p. 가격은 ￦1.

참고로 版權과 著作權을 所有하고 있는 著者의 住所를 소개한다.

Poets' and Painters' Press

S. Weeraperuma, 17 Regent Square, London W.

C. 1 England

● 編輯者 註: 영국 BNB(British National Bibliography)에 在職하는 Susunaga Weeraperuma 氏(Librarian)가 三卷의 論文을 發表하여 英國內는 勿論 世界圖書館界에 좋은 反應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氏는 公共, 大學, 特殊, 國立等 英國內의 各種 圖書館을 거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으며, 英國圖書館協會의 會員으로서 London 大學에서 박사학위(경제학)를 받은 경제학자이기도 한 다채로운 經歷의 所有者이다.